

'90년대 韓國의 석유구매전략 (요약)

- 대한석유협회 -

이 자료는 석유협회의 의뢰에 따라 페레이돈 페사 리키박사(美國 하와이대학부설 동서문화센터 에너지 시스템연구소장)가 작성한 「OIL PROCUREMENT STRATEGY FOR KOREA IN THE 1990s」의 최종보고서 요약부분을 옮긴 것이다.<편집자註>

석유수급

석유수요

지난 20년간의 일련의 사태들은 석유수요가 油價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9/'90년의 유가는 지난 '70년대 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경제의 전반적 호조와 아시아에서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맞물려 지속적인 석유수요증가세를 이끌어 왔다.

'79년 이후, 세계석유수요는 급격한 침체상태로 빠져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생산품별 기준으로 살펴 본다면, 흥미로운 특징을 추출해낼 수가 있다. 즉 중유와 중질제품을 데이터에서 제외하면, 수요감소는 매우 완만하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질제품을 제외하면, 수요감소는 전혀 없었고, 단지 일시적인 증감이 있었을 뿐이다.

작금의 중동사태는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제3의 유가파동에 관한 논의는 시기상조이다. 실질적으로 지난 '79/'80년에 보여졌던 충격을 받으려면, 가격이 배럴당 52달러까지 오르고 또 이것이 1년 이상 지속되

어야 한다.

만일 현재의 중동사태가 악화되어 진정한 유가파동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향은 다소 상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79년때보다는 아주 미약하고 일시적인 수요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분석이다. 중유와 중질제품을 감축할 여지는 더이상 없으며, 사실상 손쉬운 에너지절약은 이미 이루어져있는 상태이다. 이에 덧붙여, 지금은 세계가 10년전보다는 오일쇼크에 대해 더욱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페트로달러 재순환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장치들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수요시나리오는 여러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 케이스에서 보면, 세계 석유수요는 앞으로 10년간 1.7%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율은 세계 석유수요를 현재의 65백만B/D에서 '95년에 71백만B/D, 2000년에는 77백만B/D로 끌어올릴 것이다.

低 케이스는 앞으로 10년간 단지 0.6%의 수요증가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가율은 매 5년마다 수요를 2백만B/D씩-'95년 67백만B/D, 2000년 69백만B/D-증가시키기에 충분하다.

高 케이스는 '90년대를 통하여 2.4%의 증가율을 보여준다. 물량면에서 보면 '95년에 74.5백만B/D, 2000년에 83백만B/D로 그 영향은 엄청나다.

유가파동케이스는 현재의 중동위기가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때의 수요패턴을 검토한다. 이 경우에 있어 '90년대 상반기의 증가율은 0.4%로

떨어질 것이지만, 후반기에는 1.6%로 올라 2000년까지의 총 증가율은 1%가 될 것이다. 이것은 석유수요가 '95년에 66백만B/D, 2000년에 72백만B/D에 이르러갈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석유수요 증가전망은 어떤 시나리오하에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본케이스와 高케이스에서, 이 지역은 2000년까지 세계 수요증가의 약 40%를 담당하고, 低케이스에서는 3/4, 유가파동케이스에서는 60%를 차지한다. 총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결과들은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국가별 기준에서 살펴보면, 결코 이색적인 것은 아니다. 아시아의 인구와 경제성장이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 시나리오들이 시사해주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보면, 아시아의 전체수요는 美國과 西유럽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석유공급

공급능력의 추가는 '80년대 중반에 애석하게도 무시되어 있었다. 최근까지의 계획들을 바탕으로 한 실적들은 세계공급능력의 점진적 하락을 보여주었다. 그 당시 추세는 단지 계속되는 공급과잉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만 보였다. 그러나 '80년대 말의 빠른 성장은 세계를 다른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공급능력의 하락은 즉각적인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80년대의 계획과 실적등을 바탕으로한 低케이스는 세계공급능력이 현재의 69백만B/D 수준에서 '95년에 65백만B/D, 2000년에 61백만B/D로 하락할 것임을 보여준다.

'90년에 나타났던 계획들에 바탕한 기본케이스에서는 '95년에 74백만B/D, 2000년 75.5백만B/D로의 증가가 예상된다.

막대한 매장량을 가진 생산자들이 전략적인 이유로 그것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추정한 高케이스는 '95년에 81백만B/D, 2000년에 87백만B/D로의 증가를 보여준다.

모든 케이스에 있어서, 증가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南美와 中東뿐이다. 기타 지역은 감소, 현상유지, 약간의 증가를 보일 것이다.

어떤 시나리오하에서도 몇몇 주요 OPEC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의 중요성은 크게 증대될 것이다. 비록 OPEC의 세계생산세어는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지만, OPEC의 세계원유수출세어는 현재의 60%에서 2000년에는 80%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석유수급

수요와 공급시나리오의 대조는 '90년대에 공급와해와 유가급등의 잠재성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수요증가율이 하락하고(매년 0.6~0.7%), 탐사와 생산에 대한 신규투자가 확대된다면, '90년대 후반기에 '80년대 보여졌던 것보다도 더 큰 공급과잉이 있을 수 있다. 두번째의 공급과잉으로 야기되는 또 다른 석유위기는 다가올 10년동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나리오이다.

'90년대에 세계는 좀 더 적은 수의 주요 생산국들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전체로서의 OPEC은 유가통제에 제한된 능력을 가지는 반면에, 몇몇 스윙 프로듀서들은 막대한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비록 불안정할 잠재성은 크지만, '73년 이후 처음으로 안정된 관리가격이 실행될 가능성도 있다.

공급안정 :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장기계약이라 할지라도 군사적 대결이 있는 위기시에 는 공급안보의 효용성에 제한이 따른다. 공급안보의 확보에 있어서는 제외국과의 협력관계유지가 훨씬 효과적이다. 유전개발의 참여는 그중 한가지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의 기존 유전매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보다 확실한 선택이라는 장점이 있다.

공급안보에 있어서의 정제유연성의 역할은 종종 경시되어왔다. '79년의 위기때 일부국가들에서 보여졌던 많은 문제들은 원유의 부족이나 정제시설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용가능한 원유로부터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없었던 불충분한 정제구조에서 연유되었다. 정부정책은 저질의 원유와 수출시장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의 활용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며 적어도 저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정유업자들이 이러한 종류의 원유들로부터 투기성의 제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위기시 시장에서 이용가능성이 큰 원유들에 기초한 제품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임가공계약은 다른사람의 비용으로 여분의 시설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위기시에 모든 시설능력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임가공조절은, 가능할 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민감한’ 지역들로부터의 명시된 쉘터의 원유구매는, 우리의 견해로서는, 에너지 안정을 확보하는 실용적인 방법이 아닌 반면, ‘안정된’ 국가들에서의 합작투자 공장 건설은 위기시에 공급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치밀한 제품시장 조절은 위기시에 원유공급조절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공급확보에 있어서의 정부의 개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자주 정부가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하기에는 때때로 너무 복잡한 정유산업의 세부경영에 너무나 깊숙히 간여해왔다. 반면에 정부는 국제적인 공급분배협정, 주요산유국과의 선린관계유지, 그리고 전략비축의 유지와 참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비축관리에는 여러가지 가능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가지 중요한 특성은 비축유방출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될 수 있는 가능한 일련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규칙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유회사들이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전 동력자원부장관 이 봉서씨는 OPEC국가들이 한국에 그들의 전략비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념을 제안하여 왔는데, 이러한 개념은 실질적인 원유부족 사태시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이 상당한 잇점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사우디아라비아등 대산유국의 일부는 가격상승의 역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생산능력확대를 지향하여 온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들 산유국에게 극동지역에의 주요 수출터미널 설치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질 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제안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계약과 헷징

안정된 가격의 원자재확보 필요성은 현물과 선물시세의 가치를 증대시켜 왔으며 또한 최근 몇년동안 국제시장에서 헷징의 사용도 큰 증가를 보여왔다.

아시아에서의 석유선물은 그 중요성이 증가하여 왔지만, 미국 또는 유럽과 비교하여, 아시아의 선물시장은 아직 유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시아지역 트레이더들은 아직도 헷징을 크게 활용하고 있지 않다.

공식기준 가격체계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기존 기준유종(WTI, ANS, 두바이 등)들은 '90년대 중반까지 가격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 반면에 Arab Light가 기준 원유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록 계약기준에 의한 원유판매가 원유거래의 주요 패턴으로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계약들은 점차적으로 현물가격과 현물연동가에 바탕을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 관리가격으로서의 고정가격 시스템은 영원히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세계정제추이

'70년대말에 석유제품교역은 전체석유교역의 단지 10%만을 차지했으나 '80년대말에는 약 1/3을 차지했다.

최근에 두가지의 상반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더 많은 수출용 정유공장들이 대부분 아시아지역에서 계획되고 있다. 가능한 점에서의 수출과 비용효과적인 점에서의 수입으로 바쁘게 균형을 유지해왔던 국가들은 이제 점차 증대되는 국내수요에 직면하고 있다. 이 국가들에 있어서 국내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제고도화시설은 가장 긴박한 문제이다. 현재의 계획들은 두가지의 상반되는 추세들이 실질적으로 서로를 상쇄시킬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새로운 소수의 제품들은 시장에 진출될 것이지만, 많은 수출업자들은 그들의 생산을 국내시장쪽으로 돌릴 것이다. 만일 건설과잉이 발생한다면(또는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업은 재개될 것이다.

현재 주요한 정제시설 증설은 아시아외에서는 계획되고 있지 않다. 비록 많은 회사들이 다른 지역에서의 정유공장 건설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의 수요급증이 기초시설에 대한 정유산업 계획의 쫓점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계획된 3.3백만B/D의 신규 정제시설

가운데서, 2.1백만B/D가 아시아지역에 예정돼 있다. 아시아지역에서의 신규정제시설에, 토의·검토는 되었으나 앞으로 5년안에 실제로 세워질 지의 여부가 의문시 되는 일군의 정유공장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2.1백만B/D라는 수치는 한층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계획된 시설 가운데 1백만B/D 정도는 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높은 수요 또는 적어도 기본적인 수요가 지속된다면, 가동률은 세계적으로 85%로 오를 것이고, '90년대말까지는 90%에 이를 것이다. 저케이스와 유가파동 케이스에서 가동률은 '88/'89 수준보다 약간 떨어질 것이지만, 이내 80~85%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단시일내에 시설과잉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크다. 만일 '70년대에 보여졌던 바울로 정유공장들이 건설된다면, '95년까지는 시설과잉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日本이 약 70만B/D의 유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MITI는 현재 이 시설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가동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단순정제시설이다. 그러나 이 시설들이 현재의 시장에서 생존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고도화설비의 추가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일의 조치도 계획된 시설추가를 1/5 증가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정유산업은 1975년 이후의 그 어느때 보다도 활발하다. 많은 불필요한 시설들이 폐기되었으며, 수요증가의 잠재력은 크다. 지금까지 신규시설의 건설에 일부 제한이 보여졌지만, 정유산업은 수요가 떨어질 때조차도 과잉건설을 서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현재의 상황하에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확장은 안전하고도 필연적인 투자이다. 하지만 국제교역에서 그들의 시장을 추구하는 확장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상황

석유의 이용은 '90년대 태평양 양안에서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래의 많은 생산지역은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산유국들은 점차 증가하는 생산우수리들을 정제하여 소비하게 될 것이다. 다수의 국가들에 있어 경유와 중유의 유통특정화가

더욱 엄중해지면서 저유황원유의 수출여력저하는 아시아시장에 각별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제제품수요는 美國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비록 현재와 같은 수요증가율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1987년과 1995년 사이에 아시아의 석유수요는 약 40% 늘어난 4.6백만B/D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상증가량의 약 반이 '90년 초반까지 이미 실현되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제의 기본상황이 급변하였다. 과거에 경질유분과 중간유분의 수요침체와 더불어 중간유분의 수요증가는 신제품의 1차소스가 크래킹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전제품의 부족을 야기시켰던 현재의 수요증가는 원유처리의 증대와 직류유분의 블랜딩으로 충족될 것이며, 이는 아시아에서 수년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원유처리의 증대가 수요증가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수요증가량은 hydroskimming만으로 제공될 수 있는 양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증가량은 LPG를 제외한 총 4.1백만배럴로서 나프타 12%, 휘발유 25%, 등유·제트유 12%, 경유 42%, 중유 4%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적 크래킹 설비가 증설되어야만 한다.

절박한 정제시설 부족은 아시아정제시설에 있어서의 엄청난 확장계획들을 내놓게 하였다. 최근 2.7백만B/D의 증류시설, 60만B/D의 resid cat cracking, 30만B/D의 hydrocracking, 20만B/D의 coking, 54천B/D의 cat reforming 시설에 관한 프로젝트들이 확인되었다.

대부의 신규정제시설 가동일시가 '95년 또는 그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나, 포함된 프로젝트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많은 시설이 '95년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많다. 위에 언급된 확장계획 가운데 단지 62%의 증류시설, 56%의 resid cat cracking, 77%의 hydrocracking, 80%의 coking, 80%의 cat reforming 시설만이 '95년에 실질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론상으로 아시아의 정유공장들은 '95년까지 수급균형상태에 근접할 수 있으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균형상태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전이 없었던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비효율적 정제지역에서의 시설의

효과적인 최대활용, 둘째는 시장경제의 자급자족을 위한 국영석유회사들의 노력, 셋째는 일본에서의 정유공장증설이 제품수입증가보다 빠르게 진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시아 오일시장에서의 현재 분위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개선에 있어서 호의적이다. 하지만 많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수년간은 지속될 것 같다.

우리는 석유교역관련 지상에서 폭넓게 논의되어왔던 아시아지역의 정유공장시설과잉을 예상하지는 않는다. 단지 지난 3년간 논의되어왔던 모든 정유공장들이 앞으로 5년안에 실제로 완공되어야만, 시설과잉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印度의 일부계획들은 재검토를 하도록 되돌려졌다. 인도네시아의 일부계획들은 실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일부 기초 프로젝트들, 특히 Shell의 태국 Mab Ta Phut 정유공장은 예기치 않은 건설상의 문제 발생으로 가동일시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우리는 비상용 유류의 부족도 예상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수급균형을 성취하려는 타이트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원유-제품마진은 hydrps kimming 공장조차도 가까운 시일안에 이윤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클 것으로 기대된다.

'95년 이후 시설초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7~10년의 리드타임이 주어진다면, 시설초과는 세계의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떤 산업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아시아의 '95년 이후 성장잠재력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여타 많은 시장들보다 시설초과의 가능성은 적다.

아시아의 휘발유시장

시장의 상태가 지역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석유분석가가 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美國, 유럽 또는 호주를 취급하는데 익숙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시아의 휘발유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일부국가들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韓國에서 1년사이 27%, 泰國은 14%-하였으며, 日本과 같은 정체시장을 포함한 모든 주요국가들에서도 휘발유수요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5%의 연간 평균 성장률이 2000년까지 아시아지역에서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휘발유수요는 금세기말까지 1.8백만B/D에서 3.3백만B/D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는 아시아의 전체수요중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87년에 휘발유는 석유수요의 약 17%였다. '95년까지 18.5%로 증가할 것이며, 2000년에는 19%에 이를 것이다. 북미나 호주에서 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40~55%임을 감안할 때, 아시아의 정유회사들이 서구와 같은 선진경제국들의 정유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종류의 압박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석유화학원료로서의 나프타수요는 견실하며,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휘발유보다 빠른 수요신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나프타 수요는 전체수요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에는 9%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프타의 증가수요는 12%이며, 휘발유는 25%이다. '95년을 통하여 아시아의 정유회사들은 총 추가원유가운데에서 37%의 경질제품을 생산하려 할 것이다. 54%의 중간유분 수요증가에 직면할 때 위에서 언급된 cracking 확장계획조차도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압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전반적인 아시아 휘발유시장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점은 평균적으로 휘발유부족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95년까지 330천B/D의 cat cracking과 437천B/D의 cat reforming 시설 추가는 휘발유 공급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의 최대활용과 휘발유 최대생산 방식으로 시설을 운용함으로써 中國을 제외한 아시아는 92 RON Clear를 평균으로 하는 블렌딩 풀로서 필요물량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시장은 대만을 제외하고 휘발유가 부족하지 않지만, 전체경질유분의 심각한 부족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아시아의 정제체계는 충분한 휘발유 또는 충분한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지만, 충분한 나프타와 충분한 휘발유를 생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질유분의 부족은 대부분 日本, 韓國, 臺灣 등과 같은 화학제품생산대국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만은 아시아휘발유에 관한 일반적 규칙에서 예외이다. 대만은 휘발유생산능력이 부족상태에 있으며, MTBE 사용은 이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日本과 韓國의 정유회사들은 현재 휘발유 수출업자로서의 위상정립을 꾀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제에 관한 일본의 연구는 '95년에 73천B/D 규모의 무연휘발유 수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는 '90년대에 나프타가격이 타이트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휘발유수출 잠재력은 감소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휘발유특정화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中國을 제외하고 50% 이상의 휘발유수요가 이미 무연화되었다. 무연화는 호주와 韓國에 있어 신형차의

경우 이미 실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90년대초에 완전무연폴로의 급속한 진전을 공언하였다. 현재의 계획들에 기초하여, 우리는 中國을 제외한 아시아의 휘발유 풀은 '95년까지 84%의 무연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종호 옮김〉

□ 땅이름에 얽힌 이야기/강원도 道溪 □

골짜기 따라 얽힌 도로와 철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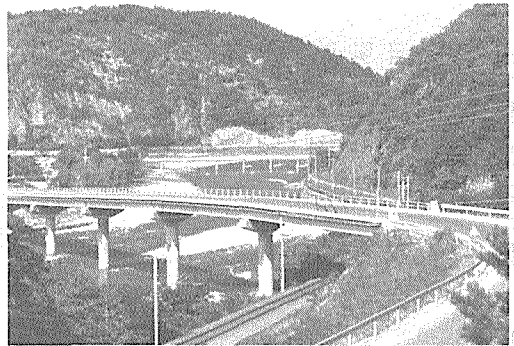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九士里 栢山골에서 발원해 태백산 준령의 골짜기를 굽이굽이 돌아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내가 삼척시를 관통하는 오시내[五十川]이다. 태백산 골짜기를 구불구불 휘어감아 돌기를 무려 선 번이나 된다.

이 五十川 상류에 자리잡은 도계읍은 응봉산, 두리봉, 연화산, 백병산, 대덕산, 덕정산 등 해발 1,000미터가 넘는 산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전형적인 강원도 산간마을이다.

所達이 도계의 옛 이름이었는데, 조선조 말엽부터 道溪라 불렀다. 道溪란 '골짜기에 도로가 있는' 마을이란 뜻인데 30여년 전만해도 이 골짜기에는 태백산 골짜기에서 별채된 임목을 운반하는 달구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이 고작이었다. 그나마 태백산 준령을 넘는 것은 엄두도 못했다.

그러던 것이 이 일대 탄전이 개발되면서 철도는 영주-강릉을 잇는 영동선에 이어 제천-백산을 잇는 태백선이 건설되고, 도계와 통리간에는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스위치 백 시스템을 설치, 도중에 기차에서 승객이 내려 힘준한 산을 오르내리던 불편이 없어졌다.

뿐만 아니라 포장도로 역시 산골 마을답지 않게 도계읍 관통 도로와 우회 도로로 나뉘어 잘 발달돼 있다. 최근엔 도계에서 하장까지 가는 도로가 개통되었는데 보는 이마저 이슬이슬할 정도이다. 그밖에도 五十川 계곡을 따라 자그마치 34개의 다리가 가로 세로 놓여 있어 道溪라는 땅 이름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五十川 계곡을 따라 도로와 철길이 서로 숨박꼭질하듯 달리고 있어 道溪라는 땅이름을 돋보이게 한다.

또 도계에서 동해시로 이어지는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노라면 도로, 철도가 五十川 사이에 두고 서로 평행선을 긋는가 하면 교차되기도 하고, 때로는 숨박꼭질하듯 산 사이로 숨었다간 다시 나타나 다시 사이좋게 달리곤 한다.

이렇게 얼마쯤 가다보면 新基라는 마을이 다다르게 된다. 新基는 우리 말로 '세터' 즉 새로운 터다. 이 첩첩산계곡에 무언가 들어서 새로운 터가 될 것이라는 땅이름에 걸맞게 신기, 西下, 古武陵, 大耳, 大基, 安衣, 大坪리를 관장하는 도계읍 신기출장소가 들어섰고, 또 신기면 사무소가 세워져 지방 행정기능을 전담하고 있다.♣

이흥환 (湖油수승부 차장)